

9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4.9.26.(목) 오후 2시 3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안호림 부위원장, 서신석, 강건기

진한수, 안성희, 이상헌, 이성우 위원 8인(허인순, 박화선 위원 서면 제출)

회사 참석 인원 : 사장, 보도국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손영준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9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성기홍 대표이사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성기홍 대표이사

제가 9월 16일 날에 연합뉴스TV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3년 동안 일을 해왔는데요. 지금 일정상으로 다음 달 10일날 이제 TV 주주총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때 새로운 TV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그때 baton을 넘기고 TV경영을 그분에게 맡기게 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법적인 기구로서 우리 연합뉴스TV 여러 가지 방송 보도 내용을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제언해 주시면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마침 임기 떠나기에 앞서서 이렇게 시청자 회의를 하는 마당이기에 당연히 인사를 드리고 가는 길 같고요. 시스템적으로 딱 맞아 떨어졌다면 저희 전무이사과 보도본부장도 함께 와서 인사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두 분은 지금 이 회사의 규정상 먼저 그만두셨습니다. 연합뉴스TV가 초창기 개국 당시와 비취본다면 괄목할 정도로 매우 큰 성장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률 변화 속의 지표로도 드러나고 있고 또 여러 시청자위원님께서 또 이런저런 제언도 해주시고 건의도 해주셔가지고 콘텐츠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의 형식이라든지 포맷에서도 굉장히 다채로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앞에 계신 보도국장이 그에 대해서 지휘를 잘 해주셨고 먼저 나간 보도본부장님이 전체적인 책임 하에서 프로그램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뉴미디어 공간 디지털 쪽에서도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했는데 아마 다음 경영진이 들어서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큰 도약으로 가는 터전을 잘 닦으리라는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에게 우리 TV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청자들의 시선을 다 모아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새로운 경영진 들어서더라도 우리 시청자들께서 TV를 위해서 애정 어린 여러 가지 제언 그리고 충언해 주신다면 아마 TV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 손영준 위원장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현상 보도가 많습니다. 트럼프 후보 암살시도, 1차 토론회, 여론조사결과 등입니

다. 그러나 스윙 스테이트는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의견이나 정책이 충돌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을 관통하는 갈등의 근간은 무엇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미 대선의 의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보도를 희망합니다.

- 연합뉴스TV는 전문가 대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뉴스포커스, 투나잇이슈, 뉴스초점, 경제읽기, 뉴스워치, 뉴스프라임, 한반도 브리핑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작진의 노고가 담긴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담 내용에 대한 text service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질문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회사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신지홍 보도국장

- 미국 대선 관련 질의해 주셨는데요.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11월 5일날 미국 대선이 열리는데 지금 47대 대통령이고 60번째 대선이기도 합니다. 그때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선거까지 같이 있는 굉장히 큰 선거입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3년간 경험 해봐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바가 있는데요. 미국 대선 자체가 워낙 복잡해 가지고 엄청난 전 세계적 글로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게 미국 사람들조차도 잘 이해 못하는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TV에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해왔냐 하면은 주로 현장을 많이 가서 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의 어떤 대선에 대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표출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프라이머리, 코커스, 컨벤션, 토론회에 현장의 살아있는 뉴스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미국 대선의 의미라든지 미국 대선이 전 세계 글로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대선의 의미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나가 있는 인력이 한 명밖에 없고 글로벌 인원도 워낙 부족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제 남은 기간 저희가 D-50이라든지 D-30 이런 중요한 꺾이는 시점을 맞춰가지고 좀 스페셜하게 만들어볼 생각을 갖고 있고 기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 텍스트 서비스는 저희가 지난번에 1월에 지적해 주신 걸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 대담의 경우에 한해서 텍스트서비스는 지금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다 할려면 계산을 해봤더니 월 한 5백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게 좀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사실은 그래서 어느정도 할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

- 점심시간에 진행하는 '뉴스센터' [제보23] 코너가 눈에 띄어..., 밤사이 사건 사고 등 기자가 시청자들의 제보 등 사건 사고를 요약해서 일상생활을 전달하는게 좋았습니다. 뉴스는 언론이 직접 발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제보하는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뉴스제보는 뉴스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뉴스를 더 다양하고 폭넓게 만들기 위해서는 뉴스제보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제보 23]코너를 따로 만들어서 뉴스시간에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대표적인 코너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에게 뉴스아이템으로써 적극적으로 제보를 유도하고 [제보23]코너를 통해서 시청자의 제보를 전달하는 것은 시청자에게 관심과 여러 가지 시청률 제고 측면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시청자들의 제보23을 통해서 생생한 소식을 전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지홍 보도국장

저희가 5개월전에 뉴스 제보를 통한 뉴스 생산을 늘리자는 방침에 따라서 회사 내에 제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장급 기자로 제보팀장을 두고 또 외부위원과 함께 지금은 일단 2명이 운영중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제보를 분류해가지고 각각 파트에 전달해 주고 뉴스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보 자체가 그 방송사의 어떤 공신력과 영향력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건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경쟁사인 YTN에 비해서 제보가 좀 떨어졌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저희 제보가 YTN 못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제보팀을 만들고 [제보23] 코너도 만든 겁니다. 이 제보 코너들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좋은 기사들을 지금 내보내고 있고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허인순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허인순 위원(서면 제출)

'경제썩썩' 추석 연휴 무료·할인 꿀팁...문 여는 병원과 약국은, 추석 연휴 동안 무료 고궁, 박물관 입장 정보, 교통정보, 최근 5년간 휴게소 음식 인상률, 추석 연휴 기간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 병원과 약국 의료비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하는 등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그 중 MZ세대를 위한 기사는 주제와는 동떨어진 내용이었습니다만, 학교생활기록부, 화재증명원, 여권정보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등 일상 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전자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MZ세대가 생활기록부 중 일부를 SNS에 게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셀프 분석'을 합니다. 교내 수상 경력은 물론 학습 태도나 동아리 활동 내역, 교우 관계 등이 모두 상세히 기록된 과거 자료를 통해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돌이켜보고 스스로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30대가 되기 전에만 출생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멀리 지방법원까지 가 출생신고서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의 성향도 알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 신지홍 보도국장

저희가 매주 '경제썩썩'이라는 코너는 차장급 경제기자 4명으로 구성된 한 20분 정도 되는 재미있고 소프트한 경제 얘기를 들려주는 코너인데 직접 출연해서 진행자와 1대 1로 대담을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보통 차장급들이 이제 월화수목금을 한 명이 맡고 그다음 주에는 다른 차장급이 맡는 그런 코너입니다. 시청자에게 반응이 굉장히 좋고 기업들도 이 코너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들 좋은 뉴스가 나오기를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칭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신석 위원

- 뉴스 보도 제목 선정에 있어 시청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약어 사용이나 신조어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보도를 했으면 한다. 요즘 뉴스 보도의 제목이나 내용을 보면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청자들이 그 뜻을 이해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국민이 시청하는 뉴스 보도라고 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선택과 신조어를 사용할 경우 단어에 대한 부연 설명 통해 보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24년9월11일 [경제속속] "긴 연휴 해외여행 어디로...인류 최초 '조만장자'는" 제목도 '조만장자'란 단어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뜻은 자산이 1조 달러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보도 중간에 박진형 기자가 간단히 설명했지만, 2024년09월10일 [뉴스위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구글-네카오 타깃 전망", 보도 제목에서도 '네카오'의 의미를 일반적인 사람은 이해 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단순히 줄여서 표현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만 제목만 보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있다. 2024년09년01일 [경제] "심상찮은 서울 아파트값...'노도강'마저 신고가" 의 제목에서 '노도강'의 뜻을 이해 못함, 보도 내용에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의미없는 약어 표현), 2024년09월12일 [지역] " "내 딸 가스라이팅"...청소년 흥기로 찢러 중태 빠뜨린 여성 구속" 제목에서도 '가스라이팅' 단어의 의미를 일반인들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보도 내용에서도 설명이 없다. 의미를 찾아보니 "정신적 학대나 가해자가 상황 조작을 하여 피해자가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 및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 공영방송 연합뉴스TV는 모든 일반 국민들이 시청하는 뉴스 보도 채널이다.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선택이나, 무의미한 약어 사용, 신세대들만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세대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또한 뉴스 제목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이나 단어를 선정하여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2024년9월02일, 제목 "딥페이크 피해자 느는데...중고생 35%만 생성형AI 교육받아"에서 무엇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보도인지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또한 "범행도구로 지목되는 생성형 AI에 대한 교육을 받은 중고등학생이 3명 중 1명꼴인 걸로 조사 됐습니다." 무엇을 시청자들에게 뉴스 전달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뜻을 그대로 이해를 하면 생성형 AI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많아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밖에 의미 전달이 되지않는다. 생성형 AI는 딥러닝을 사용하여 훈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제작, 디자인, 연구 개발 등 창의적인 작업부터 비즈니스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 제미나이(구글),챗GPT(MS), 네이버의 CLOVA X, Canva(캔바) AI 이미지 생성 등, 생성형 AI는 다양한 분야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유용한 도구중 하나로 일반인뿐 아니라 학생들도 많이 배워 활용할 필수적 도구중 하나인데, 뉴스 보도 내용만을 봤을 때 '범죄 도구로 사용되는 생성형 AI를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있어 문제점이 많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보도 내용처럼 인식이 되었다. 보도하고자 하는 의도는 '많은 학생들이 생성형AI 활용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활용에 있어 윤리적인 교육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딥페이크 등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 신지홍 보도국장

- 저희 기자들이 보니까 저도 좀 문제의식이 있는데 너무 약어나 조어를 많이 만들어서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에 항상 시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기자들이 그

렇게 특별한 용어를 만들지 말고 그냥 평범한 어휘로 쉽게 쉽게 기사를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 말씀해 주신 조만장자, 네카오, 노도강, 가스라이트 4개 중에 조만장자, 네카오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노도강은 부동산 쪽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여서 상당히 저는 이제는 일반어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가스라이팅도 대체로 중학교 이상 정도 수준이면 이해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기사 안에도 한번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긴 합니다. 앞으로 보 도시 유념하겠습니다.

- 시부분의 보도는 10대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생성형 시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데 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 비율이 설문조사 대상의 약 35%정도 밖에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맨 마지막 문장에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언급했듯 디지털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교육이 더 마련돼야 한다고 취지의 단신 기사입니다. 교육이 절실한데 문제의식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 강건기 위원

< “학교로 번지는 ‘딥페이크’공포..교육현장 대책은?” 보도 관련>, 9월 11일 뉴스센터에서 “학교로 번지는 ‘딥페이크’공포...교육 현장 대책은?”이란 주제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출연하여 뉴스 진행자와 교육현장의 현실과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질/답하는 보도였습니다. 특히, 하교육감이 딥페이크의 심각성과 대책을 상세히 설명하는 모습은 매우 신뢰가 되었습니다. 특히, 예시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교육감 가짜 공약은 짧은 시간에 딥페이크를 손쉽게 만들어 퍼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교육감은 학교현장에서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의식이 부족한 이유로 기술이 교육을 앞서 가는데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학교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적절했습니다. 또한, 부산 관내 초중고 학교를 순회하면서 경찰과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시교육청의 다양한 대책을 듣는 심층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으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 딥페이크를 신고하면 바로 삭제하는 등 ARS 1377 홍보, 피해자 법률지원,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도 강화하고 방통위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협약도 체결해서 2차 피해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정책 설명은 시청자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연합뉴스TV가 뉴스센터에서 단순히 딥페이크 현상을 전달하는 보도에 그치지 않고, 책임있는 교육감과 인터뷰를 통해 학교현장의 문제점과 대책을 심도있게 짚어본 것은 시민들에게 교육정책의 신뢰감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신지홍 보도국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부산 교육감 스튜디오를 직접 모셔와서 저희가 대담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지금 딥페이크에 관련한 논란들이 많은데 부산 교육감이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직접 본인이 실현을 해서 딥페이크를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 같은 게 있고, 영상이 있고 보여준다고 해서 저희가 대담을 하게 됐고요. 이분 대담이 굉장히 내용이 좋아가지고 여러 군데서 좋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대담을 많이 하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그런 코너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진한수 위원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아기들...가족 자처한 자원봉사자들, 해당보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가는 베이비 박스센터에도 추석이 돌아왔다,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의 새 가족을 자처하고 있다”라는 앵커의 멘트로 시작합니다. 이어 센터가 처음 문을 열 때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다면서 ‘몸이 아픈 친구’와 기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 기자는 “가족이 없다는 것만 빼면 남들과 똑같은 이 아이들에게도 어김없이 추석명절이 돌아왔다”라면서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아이들에게엔 여기가 고향이고 이곳 사람들이 가족이다”라고 아이들의 현실을 전합니다. 많은 이들이 명절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기사가 베이비 박스에 남겨진 아이들의 외로운 현실을 전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위 기자의 멘트가 필요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이해합니다만, ‘몸이 아픈 친구’의 초상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몸이 아픈 친구’ 가족이 없는 것만 빼면 남들과 똑같은, ‘센터 아이들에게엔 여기가 고향이고 가족이다’라는 내용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졌고, 기사멘트로는 다소 감상적으로 느껴져 시청자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차별과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만들 수도 있다는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픈 친구’는 이름(밝히기를 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나)만 말해도 충분하였을 것 같고, 기자와 대화하는 장면은 굳이 왜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장면이나 아이들이 센터에서 추석을 맞아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등에 소개하였다면 보다 더 취지에 적합하였을 것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어 아이들을 위해 명절연휴에도 열심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 이야기와 아이들을 가족 품에 안겨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종락 목사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다시 데려가서 키울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3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다시 데려갔거든요”라는 내용에 덧붙여 어떤 상담과 지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하였다면 센터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대다수가 다시 부모의 곁으로 또는 새 가족 품에 안겼다’라는 내용도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져 어떻게 다시 부모의 품이나 새 가족을 만나게 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치가 더해졌다면 베이비박스 제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나 관심을 유도하는 등 기사의 취지에 더 부합하였을 것입니다.

▲ 신지홍 보도국장

지적하시는 것 중에서 빠 아픈 대목인데요. 사실은 저도 기사를 다시 한 번 제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기사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출발한 기사인 것 같긴 한데 이 기사를 다루는 솜씨가 제가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다룰 때는 여러 가지 인권적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기사를 쓸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일종의 감수성이랄까 이런 게 조금 무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사에 너무 이렇게 수식을 많이 하려고 기사를 아주 감동적으로 만들려고 무리하게 노력한 흔적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기사를 드라이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다시 하고 또 인권적인 측면에서 워낙 언론 뉴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이게 아주 좋은 뜻으로 의견 주셨는데요. BBC방송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가이드라인에 미성년자 인터뷰를 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 얻도록 하는 만큼 이제 우리 진한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요. BBC사례를 이제 참고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개

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화선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박화선 위원(서면 제출)

- [뉴스초점]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1천만 관중시대 열었다. 9월 16일

우리 프로야구가 사상 첫 한시즌 1천만 관중시대를 열었고 이종훈 스포츠평론가를 초대하여 천만관중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짚어보는 유익한 시간이였다. 하지만 모기업의 지원없이 여전히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프로스포츠 구단의 산업화로서의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도 같이 있었으면 더 좋은 분석리포트가 되었을거 같고, 최근 성행하고 있는 암표에 대한 문제지적이 있었지만, 암표가 발생하게 되는 매크로를 통한 인터넷 예매에 대한 문제점이나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중장년층의 티켓구매의 접근성에 대한 얘기도 이슈화 시켰다면 야구팬들에게 더욱 유익한 리포트가 되었을거 같다.

- [젊은피,디] "게임해도 엄마가 응원해요" 젊은 게이머들에게 'e스포츠'를 묻다

긴 시간 게임에 시간을 쏟는 아이들에게 "게임 좀 그만 해"라고 말하는 엄마 입장에서 e-스포츠의 세계에 대한 기획은 새롭고 재밌었다. e-스포츠라고 하면 프로 게이머라는 직업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농구나 야구와 같은 스포츠와 같이 매니저, 코치 등의 직업도 있다는 걸 알게 되니 게임을 잘 하고 좋아하면 이 분야에서 일하는 것도 행복하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중간에 코치 인터뷰에서 코치가 "자녀가 프로게이머의 길을가겠다 하면?"이라는 질문에 "안시킬 것 같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나오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코치에게 e-스포츠란 인생이고 어린 시절 꿈꿔왔던 것이라고 하고 이 일을 할 때 즐겁다라고 하면서도 자녀에게 안시킬 것 같다고 하는 이유가 힘들어서 인지, 아직까지 e-스포츠 시장이 작아서 잘 되기가 어려워서 인지 등의 인터뷰가 추가됐더라면 더 풍성한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 신지홍 보도국장

- '뉴스초점' 중에 프로야구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1천만 관중 시대가 열렸다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던 뉴스인데 저희가 조금 입체적으로 못 다뤘다고 지적해 주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후속 보도나 대담을 통해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젊은 피,디'는 이걸 TV는 아니고 유튜브에 나가는 콘텐츠인데 우리 입사 1년 차 PD가 '젊은 피,디'라는 코너를 맡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콘텐츠 2~3개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경험이 부족한 부분들 같은 게 있어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차근차근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고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성희 위원

- 현장잇슈, 4분 이내의 짧은 영상 구성 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청자들에게 현장을 보여주고 소비자나 관계자, 전문가 등 인터뷰를 통해 이슈의 배경과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방영 주기를 살펴보니 월 3회이던데 회수를 조금 더 늘려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이슈를 다뤄주길 기대합니다.

- (채이is삶의현장) '독도 그림' 향한 독심, 결국 대박 터졌다..."내가 넣겠는데 무슨 상관" 기자가 직접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체험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다양한 매체를 접하지 못하는 시청자들에게 이슈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이슈를 다뤄주길 기대합니다.

- [연합뉴스TV 스페셜] 평균 49.4살 퇴직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연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숙련·저임금이 대부분인 고령층 일자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전문가의 의견과 실제 정년 후 재고용되거나 재취업한 사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 정년을 앞둔 중장년층에게도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뉴스프라임 (~9.12) 주요 이슈들을 선별해 깊이 들여다보는 심층 프로그램이라 찾아보게 되는데, 9월에는 12일까지라는 짧은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 해야겠지만 8번 중 5번이 날씨 이슈로 구성되어 다양한 이슈를 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 신지홍 보도국장

- 말씀하신 '현장잇슈', '채이is삶의현장'은 이게 TV 프로그램용이 아니고요 유튜브용으로 제작되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좀 약간 콘텐츠 자체가 유연하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현장잇슈'는 우리가 그때그때 사람들 눈길 끄는 게 있으면 직접 찾아가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현장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코너인데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대표적인 코너 중에 하나로 지금 성장에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더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인력 사정이 있습니다. '채이is삶의현장'은 저희가 정말 거의 한 2년 가까이하고 있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 자체는 어떤 사람들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같이 하루 이틀 지내보고 이런 코너인데 코너가 굉장히 재밌다고 해가지고 좀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스페셜'은 PD들이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PD들이 일주일에 한 편씩 콘텐츠 제작을 해가지고 일요일날 방영하는데요. 저희 제작물 기획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사회에 어떤 시사적인 사안이나 사회의 어떤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종의 탐사 프로그램처럼 끌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프라임'에 지난번에 날씨가 많이 들어간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8~9월초 정도까지는 거의 폭염과 열대야 특보 체제로 TV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교롭게도 이번에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다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헌 위원

- 이번 추석은 주말과 이어진 짧지 않은 연휴가 있었습니다. 교통상황은 실시간으로 계속 상단 자막으로 정보를 제공했고, 연휴 전부터 무료나 할인 팁을 제공하는 등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병원이용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연휴기간중 문 여는 응급실 상황이나 병원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시청자들에게 도움되는 정보가 잘 전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요금 언제 올리나...정부의 선택은'(9/15) 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역대급 폭염에 전기세 걱정이 큰 상황을 고려하면 굉장히 시의성 있고, 관심이 높은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서는 한전의 재무위기와 함께 전기세 인상에 따른 영향 등을 깔끔하게 리포팅하고, 정부 입장도 잘 설명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에서도 짚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지난 달, 신설한 코너에 대해서는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빠르게 반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와 소통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연합뉴스TV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 신지홍 보도국장

- 추석 기간이 저희 방송사 입장에서는 평소보다 시청률이 한 50% 이상 더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거의 시청자들을 저희 채널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미리 추석 전부터 한 열흘 전부터 관련 뉴스를 생산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가 이제 추석 기간에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경쟁채널 YTN하고 시청률 경쟁도 격화되고 있고 기사를 많이 준비해서 최대한 정보가 되는 뉴스를 추석기간 동안 방송을 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따라서 저희 뉴스를 보고 있으면 추석 기간에 각종 정보가 다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게 저희 목표였고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기요금 보도는 조금 한 부분으로 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

- 사회복지의 날 관련 뉴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 매년 9월 7일은 법정기념일인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지난 7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또 이 날을 기점으로 한 주 동안은 사회복지주간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의 날 관련 행사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각 지자체별로 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인 사회복지에 대해 전국적으로 크게 진행되는 법정 기념행사인데도 2021년 대통령의 영상 축사를 잠깐 소개된 것 외에는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날 관련 뉴스가 보이질 않아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보도전문 채널로서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면서 보도의 균형과 깊이를 모두 충족해주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명절 연휴에도 국민에게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취재에 불철주야 애쓰신 연합뉴스TV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 신지홍 보도국장

아마 저희가 사회복지나 이런 취약계층 관련 뉴스들은 평소에 꾸준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기념일이 이날이라고 특별히 더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법정기념일 이때 뉴스를 만들어내면 훨씬 더 주목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평소에 열심히 하더라도 또 이 기간이 되면 조금 더 뉴스를 관련 뉴스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혹시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9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